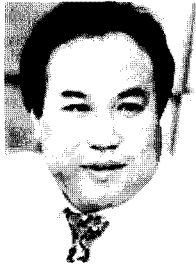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김성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구제역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원유수급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목장 경영악화는 끝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다. 연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0년 원유수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름을 거치면서 예년과 달리 고온과 잦은 비로 젖소들이 지독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실 구제역이 재발하기 전까지도 원유 생산량이 회복은 커녕 오히려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연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약 4천두 정도가 살처분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어 지난 여름을 거치면서 지난 10월 이후 도축 마릿수는 2,603마리로 지난해 1,920마리보다 683마리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가임암소와 후보소 자체 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임 암소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3,000두가 줄어든 것 중 2010년 6월부터 9월 사이 3개월 동안에 2,000두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12월 30일 현재 약 1만여두의 젖소가 살처분된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젖소 사육두수는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원유수급 예측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낙농진흥회가 발표한 12월 낙농산업 주요 지표표를 보면 11월 중 원유생산량은 16만 톤으로 일평균 생산량은 10월보다 오히려 1.6%가 줄어들었다. 연간 누적 생산량 역시 190만8천359톤으로 전년 동기 210만9천372톤보다 1.3%가 감소했다.

오늘의 원유수급 악화는 연초 구제역과 여름의 고온·습 스트레스라는 외부적 요

인과 조사료 등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목장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사육의욕 저하 등 내부적인 원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일부 목장 현장에서는 외국에서 젖소를 들여오지 않고서는 생산기반 회복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목장이 자체적으로 육성우 사육을 통한 두수 유지가 불가능할 만큼 낙농생산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다.

구제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곧바로 배합사료 가격 인상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인데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의 도래, 올해 2년치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낙농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잘 알다시피 낙농은 타 비육 축종과 달리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복구하는데 시간과 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따라서 오늘의 원유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 인상을 하든 아니면 정부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든 간에 우선 목장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목장 수지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낙농인들이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왜냐하면 우유를 짜면 짤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구제역으로 망가진 사육두수 회복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낙농인들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을 회복시키기에는 이미 역부족 상태로 분석된다. 우유는 영유아들의 기초식량으로 한번 파동이 오면 배추 파동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배추와 달리 수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역 방역으로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간파해 입체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유수급 악화는 11월 구제역이 재발되기 전부터 이미 깊숙히 진행된 현안이었지만 정부의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구제역이 터지면서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만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원유생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㉞

